『기독교사회윤리』 제56집
(2023) 158~184

공적 교회의 위기와 그 역할의 재설정

김성수(숭실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II.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논쟁

III. 팬데믹에 대한 신학적 논쟁

IV. 교회의 공적 기능에 대한 논쟁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6.06

www.kci.go.kr

• ABSTRACT •

The Crisis of the Public Church and the Reorientation of its Task

Sungsoo Kim(Lecturer,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ological issues that were discussed in the German context during the pandemic and to reconstruct the function of the church in the public sphere. For this purpose, the core content of the debate on the ban on face-to-face worship, on the theological analysis of the pandemic, and on the public task of the church were specified. The church must implement the spread of the gospel. The maturity of faith and speaking of God, who is compassionate and supportive, is necessary. The further task of the church is the implementation of charity, which cannot be regarded as a means for social recognition. Its effort could lead to the achievement of the common good and the development of society.

Key words: Public Church, Public Theology, Wolfgang Huber, Pandemic, Theodicy, Social Ethics

www.kci.go.kr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와 국가를 위한 교회의 공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그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고유의 신학적 근거가 자리하고 있다. 다양한 신학적 입장이 공적 기여라는 큰 틀 안에서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독일의 교회와 신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최근 뮌헨 대학교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라이너 안셀름(Reiner Anselm)의 공적 개신교(öffentlicher Protestantismus) 개념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안셀름은 그의 스승인 트루츠 렌토르프(Trutz Rendtorff)의 입장을 따라 루터의 자유 이해와 근대적 자유 이해가 유비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고, 이를 근거로 개인적 자유의 실현이 개신교 윤리의 핵심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1] 그는 기독교인이 자유에 기초한 윤리적 행위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공적 영역에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노력은 신앙의 사적 측면을 의미하는 개인적 개신교, 교회 차원의 활동을 뜻하는 교회적 개신교와 함께 기독교의 또 다른 층위를 형성하는 공적 개신교 차원의 활동에 해당한다.[2] 공적 개신교 차원의 활동은 공론장에서 정책과 법률의 개선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일을 통해 구체화된다. 여기서 안셀름은 기독교의 절대성을 주장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진리 주장이 공동선을 위한 보편적 논의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안셀름의 기획은 교회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지만, 이 과정에

---

1) Reiner Anselm, "Politische Ethik," In *Handbuch der evangelischen Ethik* (München: C. H. Beck, 2015), 238.

2) Christian Albrecht, Reiner Anselm, "Verantwortung für das Gemeinsame. Die Aufgaben eines Öffentlichen Protestantismus," In *Konzepte und Räume öffentlicher Theologie. Wissenschaft- Kirche- Diakonie*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20), 59.

www.kci.go.kr

서 복음의 영향력이 제한되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접근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함의하고 있는 복음의 영향력 증대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직접적인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의 실천은 공적 영역에 건설적 역할을 한다.[3] 진리의 전달은 개인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구현은 인간 존엄성의 보호와 사회정의의 증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음의 확산은 공동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의 영향력 증대를 통해 공적 영역에 기여하는 공적 교회(öffentliche Kirche)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체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4] 복음 전파, 사회정의와 관계된 정책과 법률을 관찰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독교적 가치에 토대를 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적 대화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독교적인 것을 세속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이 생각은 교회와 말씀의 공적 성격을 강조한 종교개혁 전통의 이해와 궤를 같이 한다.[5] 이러한 측면에서 복음의 영향력 증대를 통한 공동선의 추구는 개신교회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공적 과제이다.

그러나 이 과제의 수행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난항을 겪었다. 대면 예배가 금지됨으로써 복음 전파의 전제인 신앙의 유지가 어려워졌다. 이 어려움은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음에도 명확한 답이 교회로부터 제공되지 않으면서 더욱 가중되었다. 또한 이웃 사랑의 실천도 팬데믹으로 인한 제약 때문에 활발히 이뤄질 수

---

3) Wolfgang Huber, *Kirche in der Zeitenwende. Gesellschaftlicher Wandel und Erneuerung der Kirche* (Gütersloh: Verlag Bertelsmann Stiftung, 1999), 118-120.

4) 공적 교회에 관한 이해를 위해 다음을 참고하라. 김성수, “공적 교회의 개념과 책임적 과제 - 볼프강 후버의 교회론 연구,” 「신학사상」 185(2019), 149-174.

5) Lutherisches Kirchenamt, *Unser Glaube. Die Bekenntnisschriften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6), 69-70.

www.kci.go.kr

없었다.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의 구현이 어려워지면서 교회의 공적 역할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집단적 고난 상황에서 유의미한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과 비판이 나타났다. 이것은 뜨거운 신학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때 제기된 의견들은 현존 교회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공적 책임의 재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의들은 팬데믹 이후 공적 교회의 역할 수행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것은 팬데믹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공적 활동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따라서 독일교회 안에서의 논의들이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팬데믹 시기에 독일교회 안에서 첨예화되었던 신학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획득한 관점을 토대로 공적 교회의 과제를 정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관한 논쟁, 팬데믹에 대한 신학적 논쟁, 교회의 공적 기능에 관한 논쟁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교회 역할의 재설정을 시도하려고 한다.

II.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논쟁

2020년 3월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의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고, 다양한 강제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감염자와 감염의심자의 격리, 영화 상영과 공연의 금지, 학교의 폐쇄 등이 이뤄졌다. 또한 종교단체의 집합금지 명령, 특히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이 발효되었다. 당시 이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한 가톨릭 신자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가명령신청을 제기하였지만, 곧 기각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6] 이것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www.kci.go.kr

야 할 국가의 정당한 조치라는 점이 결정의 핵심 사유였다. 그러나 법적 결정과 무관하게 이 명령의 수용 여부를 두고, 개신교 안에서 뜨거운 신학적 논쟁이 벌어졌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필립 슈퇼거(Philipp Stoellger)는 대면 예배 금지 명령에 협조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적 태도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일상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일을 당연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은 일로 만든 악이라고 보았다. 특히 부활절 대면 예배와 가족 모임을 불가능하게 만든 데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생활세계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하였다.[7] 당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과 그 극복 방안이 명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은 직면한 문제에 대처해야만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보건, 의료 지침이 가장 중요한 행위 기준으로 부상하였다.

슈퇼거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 극복 방안 역시 부재한 상황에서 대면 예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국가적 위기를 심화하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는지를 질문한 것이다.[8] 그는 이 조치에 대한 협조가 정치권력에 대한 무비판적인 순응으로 해석되어선 곤란하다고 보았다. 이 태도는 분명히 공적 영역에 대한 기여에 우선적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교회의 노력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

---

6) 정문식, 정호경, "코로나위기와 헌법국가 - 독일에서의 코로나위기 대응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 7(2020), 106.

7) Philipp Stoellger, "Eröffnung: Corona als Riss der Lebenswelt. Zur Orientierung über Naherwartungen, Enttäuschungsrisiken und Nebenwirkungen," In *Corona als Riss. Perspektiven für Kirche, Politik und Ökonomie* (Heidelberg: heiBooks, 2020), 15.

8) 위의 책, 16.

www.kci.go.kr

는 연대성의 실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9] 슈뢸거는 여기에 더하여 대면 예배의 실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 행위와 결을 달리 하는 행동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10] 동료 인간은 십자가 죽음의 결과를 공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료 인간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을 지닌 대면 예배의 실행은 기독교인이 취할만한 행동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예배는 신앙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 경시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대면 예배 대신 팬데믹 상황에 적합한 예배 형태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1]

이 연장선상에서 독일교회의 싱크탱크인 개신교신학연구소(Forschungsstätte der Evangelischen Studiengemeinschaft)의 연구원 프레데리케 판 오르쇼트(Frederike van Oorschot)는 비대면 예배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였다. 오르쇼트는 비대면 예배가 가지고 있는 고유 가치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 성도가 모여 행하는 예배 모임은 종말론적 차원의 성도의 교제와 질적 차이를 지니고 있다.[12] 궁극적인 것에 비해 상대적이고, 임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모두 이 가치를 동일하게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비대면 예배의 고유 가치는 대면 예배의 그것과 비교하여 뒤떨어지지 않는다.[13]

오르쇼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예배가 지니고 있는 성령론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예배는 성령의 임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예배는

9) 위의 책, 16.
10) 위의 책, 18.
11) 위의 책, 29.
12) Frederike van Oorschot, "Präsent sein. Ekklesiologische Perspektiven auf das kirchliche Leben unter den Bedingungen des Infektionsschutzes und seiner Folgen," In *Corona als Riss. Perspektiven für Kirche, Politik und Ökonomie* (Heidelberg: heiBooks, 2020), 80.
13) 위의 책, 80.

www.kci.go.kr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활성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면 모임이 아닌 기도와 편지 등으로 영적 교제를 나눈 점이 언급된 신약성서의 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14] 성령의 임재를 기초로 코이노니아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공간에서 이뤄지는 모임이 반드시 예배의 전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르쇼트는 비대면 예배와 같은 형식의 모임도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점,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주목받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15]

그러나 보훔 대학교의 실천신학 교수인 이졸데 칼레(Isolde Karle)는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료화하였다. 그는 비대면 예배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팬데믹에 직면한 교회가 위기 상황에 순응하여 자기 위안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16] 이 판단은 두 가지 예배 형식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차이에 기인한다. 대면 예배와 교제는 성도의 상호 작용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17] 이것은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하는 것 등의 신체적 현존을 전제로 한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호성의 실현이 제한된 비대면 예배는 대면 예배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방식의 예배와 교제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성도 간의 의사소통과 참여를 일정 부분 유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18] 칼레는 이러한 형태의 노력이 당장의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기능을 할 수 있지만,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예배와 교제의 형태가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14) 위의 책, 80.

15) 위의 책, 81.

16) Isolde Karle, "Experiment mit offenem Ausgang. Kirche in der Coronakrise," *Zeitzeichen* 4(2020), https://zeitzeichen.net/node/8218. (2023.5.16.)

17) 위의 책.

18) 위의 책.

www.kci.go.kr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철학 교수인 마그누스 쉴레테(Magnus Schlette)는 비대면 예배의 신학적 정당성 여부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주제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가 문제시한 것은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교회의 무비판적 수용이다. 그는 이 생각을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견해를 바탕으로 논증하였다. 칸트는 신학부, 의학부, 법학부를 대학의 상위 학부로 규정하였다.[19]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의 영혼, 건강, 통치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왔고, 이로 인해 다른 학부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위상과 권위를 지닐 수 있었다.[20] 세 학부들은 각기 상이한 기능 수행을 통해 정치권력에 기여하기 때문에 서로를 경시할 수 없고, 상호 존중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근대 이후 신학, 의학, 법학은 정치권력에 대한 봉사에서 더 나아가 시민에 대한 공헌을 그 기능으로 가지게 되었다.[21] 그래서 의학은 시민의 건강, 법학은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고, 신학은 시민의 신앙 증진과 삶의 영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쉴레테는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가 의료계, 법조계와 동등한 사회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이것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2] 그런 점에서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한 정책이 강조되고, 이것을 교회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

---

19) 칸트는 상위 학부들이 정치권력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고유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점과 하위 학부인 철학부가 이들을 진단, 검토함으로써 그 역할 수행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Immanuel Kant, "Der Streit der Fakultäten," In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Wiesbaden: Insel Verlag, 1964), 289-292.

20) Magnus Schlette, "Sonntags vor dem Bildschirm. Bemerkungen zur theologischen Profession in der Corona-Krise," In *Corona als Riss. Perspektiven für Kirche, Politik und Ökonomie* (Heidelberg: heiBooks, 2020), 94.

21) 위의 책, 96.

22) 위의 책, 105.

www.kci.go.kr

습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하여 그는 교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직무 카리스마(Amtscharisma)가 가시화되어야 한다.[23] 가령 목사가 가운 등을 착용하고, 예배를 집전할 때 그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이 토대 위에 목회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성도의 신앙과 삶을 위한 교회의 책임이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직무 카리스마가 가시화되고, 신뢰 형성을 촉진하는 대면 예배가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쉴레테는 교회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대면 예배를 적절한 문제 제기 없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쉽게 포기한 점을 중대한 실책이라고 보았다.

III. 팬데믹에 대한 신학적 논쟁

다른 한편으로 팬데믹 초기 많은 혼란을 겪고 있던 사회의 안정을 위해 종교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래서 2020년 3월 당시 독일의 가톨릭, 개신교, 동방정교회의 지도자들이 『도움, 위로와 희망』(Beistand, Trost und Hoffnung)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질병은 개인, 사회, 민족, 대륙,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질병은 상처받고, 연약한 존재인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기초하고 있다. 질병과 위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선함에 대한 신앙을 촉진하기도 한다. 질병과 위기는 우리 인간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한다. 이와 함께 우리 기독교인은 고난의 의미에 대한 질문 앞에 서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성서가 전하는 기쁜 소식과 기독교적 구원의 신앙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생의 친구이다. 그분은 우리

23) 위의 책, 103.

www.kci.go.kr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신다. 하나님은 환난을 원치 않으신다.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다."[24]

이 성명은 기독교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희망의 토대를 설명함으로써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집단적 고난에 대한 정밀한 신학적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팬데믹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확신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았다.[25] 이 성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당시 팬데믹에 대한 개신교만의 의견 표명이 부재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교회의 침묵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신정론(Theodizee)이 주목을 받았다. 현실에서 경험되는 악에 직면하여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신정론은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등에 의해 깊이 다뤄진 주제이다. 이들을 통해 악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한 존재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루터는 이러한 판단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존재를 드러내지만(deus revelatus), 악의 현실에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deus absconditus). 루터는 이처럼 선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되는 하나님이지만, 이 숨어 계심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가진 채 찬양과 경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6]

---

24) Georg Bätzing, Heinrich Bedford-Strohm, Metropolit Augoustinos, "Beistand, Trost und Hoffnung. Ein Wort der katholischen, evangelischen und orthodoxen Kirche in Deutschland," https://www.ekd.de/gemeinsames-wort-der-kirchen-zur-corona-krise-54220.htm (2023.5.16.)

25) Thorsten Moos, "Die Frage nach Gott und die theologische Fatigue in Zeiten der Pandemie," In *Nach Gott fragen angesichts der Pandemie. Von Gott reden – mit Gott reden* (Bielefeld: Luther Verlag, 2022), 88.

26) Martin Luther, "De servo arbitrio," In *Martin Luther Lateinisch-Deutsche*

www.kci.go.kr

근대 이후 신정론은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특히 고트프리트 빌헬름 폰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von Leibniz)는 하나님을 최상의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전능하고, 선하다고 이해하였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상대적 의미의 이성과 선함을 지니고 있다. 이 차이에 의해 인간은 선의 결핍으로서의 악을 경험하게 된다.[27] 형이상학적 악(malum metaphysicum)으로 불리는 이 악은 질병, 자연재해와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정신적, 신체적 고난을 의미하는 물리적 악(malum physicum)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판단에 의해 파생된 도덕적 악(malum morale)을 포함하고 있다.[28] 물리적 악은 때로 인간의 성숙과 같은 더 큰 선에 기여할 수 있고, 도덕적 악 역시 인간의 자유의 구현을 돕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악들을 허용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고, 선한 존재로서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존중한다.

그러나 칸트는 이성을 통해 철학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시도가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진정한(authentisch) 신정론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29]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발전된 신정론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집단적 고난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새롭게 조명을 받았다.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도 신정론이 논의의 주제로 부상하였다. 여기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리적 악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해석,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라는 해석, 회개로의 부름

Studienausgabe. Bd. 1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87.

27) Wolfgang Huber, *Konflikt und Konsens. Studien zur Ethik der Verantwortung* (München: Chr. Kaiser, 1990), 106.

28) Gottfried Wlilhelm von Leibniz, Essais de Théodicée, 이근세 역, 『변신론』 (서울: 아카넷, 2015), 166.

29) Immanuel Kant, "Über das Misslingen aller Philosophischen Versuche in der Theodizee," In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Wiesbaden: Insel Verlag, 1964), 116.

www.kci.go.kr

이라는 해석 등이 등장하였다.[30]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개신교협의회(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이하 EKD) 의장(2014-2021)으로서 앞서 설명한 가톨릭, 동방정교회와의 공동 성명의 작성에 참여했던 하인리히 베드포트-슈트롬(Heinrich Bedford-Strohm)은 팬데믹 시기의 신정론을 심도 있게 주제화하였다. 그는 집단적 고난 속에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더 나아가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의미를 재정립함으로써 하나님을 변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전능 개념의 재해석이 최우선 과제로 간주되었다. 베드포트-슈트롬은 이 개념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신학을 활용하였다. 본회퍼는 기독교와 종교를 구분하여 이해하였다. 학문 활동 초기부터 근대적 의미의 종교 개념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그는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한 이유로 겪게 된 수감 생활 중 이 인식이 극대화된 비종교적 기독교에 대한 구상을 설명한 바 있다. 종교 개념 안에서 하나님은 기계장치와 같은 신(deus ex machina)으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한 존재이다.[31] 이러한 이해는 성서의 인식과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성서는 강력함이 아닌 무력함 속에서 인간을 돕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약함과 고난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32] 고난당하신 하나님은 고난 받는 자를 이해하고, 그와 함께 하는 분이다. 이러한 인식은 기독교를 비종교적으로 해석하는

30) Ständiger theologischer Ausschuss der Evangelischen Kirche von Westfalen, "Die Frage nach Gott in der Pandemie – Krisenerfahrungen theologisch deuten," In *Nach Gott fragen angesichts der Pandemie. Von Gott reden – mit Gott reden* (Bielefeld: Luther Verlag, 2022), 64.

31) Dietrich Bonhoeffer, DBW 8. *Widerstand und Ergebung. Briefe und Aufzeichnungen aus der Haf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98), 534.

32) 위의 책, 534.

www.kci.go.kr

것이다.

본회퍼의 견해를 수용한 베드포트-슈트롬은 전능 개념이 세계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강력한 힘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33] 오히려 약함과 고난이 그 요체를 형성한다. 하나님의 전능은 무력함을 통해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베드포트-슈트롬은 팬데믹 속 하나님이 무력한 존재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것이 역설적으로 전능한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점과 이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을 도우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활동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였던 미하엘 벨커(Michael Welker)의 구상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벨커는 기존의 하나님과 전능에 대한 이해를 원시적인 사고로 규정하고, 비판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규정하고, 통제하는 전능을 가진 마술적인 존재로 이해된다.[34] 벨커 역시 하나님의 전능은 강력함이 아닌 무력함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 생명의 힘을 선사한 점에 주목하였다. 고난과 곤궁이 창조적 힘으로 연결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전능은 근본적으로 무력함으로부터 새로운 것과 선한 것을 창조하는 힘을 말한다.[35] 전능하신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그 극복을 위한 힘을 주는 존재이다.

베드포트-슈트롬은 이 생각을 토대로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바로 이성이며, 이를 바탕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활용하여 집단적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36] 결과적으로 그는 무력해

---

33) Heinrich Bedford-Strohm, "Wo ist Gott in der Pandemie? Theologische Überlegungen aus Praxis und Reflexion kirchenleitenden Handelns," *Evangelische Theologie* 81/2(2021), 97.

34) Michael Welker, "Trostbedürftig und hassgefährdet. Religiosität in Zeiten globaler Krisen," *Evangelische Theologie* 81/2(2021), 154.

35) 위의 책, 156.

www.kci.go.kr

보이는 하나님이 사실 전능하다는 점과 위기를 극복할 창조적 힘을 선사해준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팬데믹 시기 하나님의 전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던 베드포트-슈트롬의 시도와 달리 루터의 견해를 따라 숨어 계신 하나님의 현실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 베스트팔렌주 교회의 감독으로 일하던 중 2021년부터 EKD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아네테 쿠르슈스(Annette Kurschus)이다.[37] 그에 따르면, 인간은 팬데믹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이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팬데믹 상황에 놓인 교회의 태도이다.[38] 숨어 계신 하나님의 현실을 존중하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활동하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쿠르슈스는 기도가 교회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그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39]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조직신학 및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토르스텐 모스(Thorsten Moos)는 쿠르슈스의 견해와 같은 맥락에서 베드포트-슈트롬, 벨커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40] 그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

36) Heinrich Bedford-Strohm, "Wo ist Gott in der Pandemie? Theologische Überlegungen aus Praxis und Reflexion kirchenleitenden Handelns," 99.

37) 김성수, "팬데믹 시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신학적 사유와 기도가 필요한 교회," 「활천」 5(2023), 139-140.

38) Annette Kurschus, "Die ernsthafte Frage nach Gott," In *Nach Gott fragen angesichts der Pandemie. Von Gott reden – mit Gott reden* (Bielefeld: Luther Verlag, 2022), 38.

39) Annette Kurschus, "Die schöpferische Kraft des Gebets – Theologische Zeitansage," In *Nach Gott fragen angesichts der Pandemie. Von Gott reden – mit Gott reden* (Bielefeld: Luther Verlag, 2022), 58.

40) 김성수, "팬데믹 시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신학적 사유와 기도가 필요한 교회," 140.

www.kci.go.kr

않고, 그 활동을 실증화하려는 시도를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함께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표상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41]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가 약화됨으로써 하나님이 일면적으로 이해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성서가 인간의 고난과 불안이 하나님과의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모스는 함께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인식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탄원의 가능성이 차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42]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고난당하고 있지만,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로 간주되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모스는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해석 시도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는 팬데믹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주장과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모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43] 인간은 하나님의 의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팬데믹과 하나님의 의지를 연결하여 해석하고, 더 나아가 이를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따라 모스는 팬데믹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멈추고, 그보다 더 시급한 현실 문제의 극복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IV. 교회의 공적 기능에 대한 논쟁

팬데믹 초기 나타난 또 다른 신학적 논쟁은 이웃 사랑의 실천과 관계되어 있다. 교회는 일상에서 이웃 사랑을 구현해야 할 과제(막 12:29-31)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독일에서 사회봉사(Diakonie)의 형태로 구체화되었

41) Thorsten Moos, "Die Frage nach Gott und die theologische Fatigue in Zeiten der Pandemie," 79.
42) 위의 책, 80.
43) 위의 책, 88.

www.kci.go.kr

다. 교회의 사회봉사는 복지 정책과 연계되어 다양한 기관 속에서 시행되었다.[44] 그러나 팬데믹 상황 속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병원과 요양기관에서의 돌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목회 활동도 어려움을 겪었다. 대면 예배는 물론 세례식과 장례식의 진행 역시 크게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감염자들과 환자들이 목회 활동과 사회봉사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임종을 맞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교회가 고난을 겪는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타났다. 튀링엔주 주지사(2009-2014)로 재직했었던 크리스티네 리버크네히트(Christine Lieberknecht)가 이 의견을 강하게 표명하였다. 그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미흡한 역할 수행을 통해 교회가 더 이상 사회 안에서 중요한 조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났음을 역설하였다.[45] 이때 그가 언급한 시스템을 위한 중요성(Systemrelevanz) 개념이 큰 주목을 받았고, 곧 그의 주장은 뜨거운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튀빙엔 대학교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엘리자베트 그랩-슈미트(Elisabeth Gräb-Schmidt)는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공적 기여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시스템을 위한 중요성 개념은 2007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제학과 법학 영역에 자리 잡은 개념이다. 당시 위기를 겪던 은행이 사회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막대한 국가 재정의 투입이 정당화되었다. 이후 은행을 비롯한 정보기술, 에너지, 물류, 교통, 의료, 수자원, 식량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조직이 사회 시스템을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하는 영역, 따라서 사회적 인정과 지원을 받아야 하는 영역으로 이해

44) 김성수, “기독교 사회봉사의 법윤리적 해석,”「인문사회 21」14/1(2023), 3100-3101.

45) Traugott Jähnichen, Vicco von Bülow, “Nach Gott fragen und mit Gott reden – Theologische Herausforderungen im Kontext der Corona - Pandemie,” In *Nach Gott fragen angesichts der Pandemie. Von Gott reden – mit Gott reden* (Bielefeld: Luther Verlag, 2022), 13.

www.kci.go.kr

되었다.[46] 팬데믹 이후 특히 의료, 식량과 관련된 영역이 중요성을 더하였다.

그랩-슈미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신체 보존과 관련된 영역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되는 현상을 문제시하였다.[47]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영적 차원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점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간 내면의 안정은 자유의 토대로 기능하게 되고, 자유에 근간을 두고 있는 사회 시스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과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48] 그런 점에서 교회는 비록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회 시스템을 위한 기여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그랩-슈미트는 교회가 고난 받는 이들과 연대하고, 동행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49] 감염자, 환자,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교회가 집중해야 할 과업인 것이다.

교회의 공적 기능을 변호하고자 노력한 그랩-슈미트와 달리 시스템을 위한 중요성 개념을 교회와 결부시키는 시도 자체를 문제시한 입장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EKD 의장(2003-2009)으로 재직하기도 했던 볼프강 후버(Wolfgang Huber)가 이 견해를 나타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에 따르면,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은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적 관심과 인정의 정도를 가늠하는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50] 그 불인정은 그 영역이

---

46) 위의 책, 13.

47) Elisabeth Gräb-Schmidt, “Herausforderungen der Kirchen in der Pandemie und die Frage der Systemrelevanz,” *ZEE* 66(2022), 3.

48) 위의 책, 3.

49) 위의 책, 6.

50) Wolfgang Huber, “Systemrelevanz und Resonanzkrise. Warum wir der Resignation in der Kirche nur mit Innovation begegnen können,” *Zeitzeichen* 10(2020), https://zeitzeichen.net/node/8594. (2023.5.16.)

www.kci.go.kr

사회를 위해 유의미한 공헌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뜻하였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리버크네히트의 주장은 교회가 공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그 사회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함의하였다.

그러나 후버는 교회가 팬데믹 이후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회는 이 개념이 주목받은 이후 줄곧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유의미한 공헌을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지 않았다.[51] 앞서 언급된 것처럼 신체 보존과 관련된 영역만 강조되었을 뿐, 교회는 이와 무관한 조직으로 평가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팬데믹 상황에서 공적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후버는 신학적 차원에서 교회가 사회 시스템에 대한 기여를 근본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회는 복음의 내용이 암시하고 있듯이 사회가 아닌 인간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조직체이다. 교회는 사회가 아닌 인간 실존을 위한 중요성(Existenzrelevanz)을 가진 공동체인 것이다.[52] 이러한 측면에서 후버는 교회가 사회 시스템을 위한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보다 오히려 팬데믹 상황에서 실존적 위기를 겪고 있는 인간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사회윤리적 노력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울리히 쾨르트너(Ulrich Körtner)는 후버의 생각을 좀 더 심화하였다. 그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등 종교 일반이 팬데믹 상황에서 공적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들 종교들이 시행해왔던 종교의식과 사회봉사 활동이 모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53] 교회 역시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을 상실했다는

51) 위의 책.
52) 위의 책.
53) Ulrich Körtner, "Ethik in Zeiten von Corona. Eine diakonisch-ethische Perspektive,"

www.kci.go.kr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쾨르트너는 이러한 평가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는 후버와 마찬가지로 이 개념이 교회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회 시스템의 안정과 유지는 교회의 근본 과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54] 교회는 종말론적 신앙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희구하며 실존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를 토대로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현존 사회를 관찰하고, 진단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회비판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55] 쾨르트너는 사회 시스템의 안정과 유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오히려 교회가 종말론적 관점을 인식하고, 구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설명하며, 복음의 내용에 따라 팬데믹 상황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 노력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팬데믹 시기에 다양한 신학적 논쟁이 나타났다. 이 논쟁을 통해 교회의 공적 기능과 관련된 문제가 명료화되었다. 그 안에서 향후 교회가 복음의 영향력 증대와 그로 인한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추구해야 할 기본 노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논쟁을 통해 신앙의 유지와 증진 노력의 중요성을 포착할 수 있었다. 대면 예배는 신앙의 형성과 복음 전파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그 지속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것은

In *Die Corona-Pandemie. Ethische, Gesellschaftliche und theologische Reflexionen einer Krise* (Baden-Baden: Nomos, 2020), 344.

54) 위의 책, 345.

55) 위의 책, 346.

www.kci.go.kr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기 때문에 교회도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협조하였다. 그러나 쉴레테의 주장처럼 비판적 성찰과 공론화 과정 없이 이 조치를 너무나 쉽게 수용한 측면이 있다. 대면 예배 중단에 대한 동의와 협조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신학적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56] 대면 예배가 분명히 신앙과 교회의 공적 역할과 관련된 중요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중단에 관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신앙의 유지와 증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팬데믹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통해 신앙의 유지와 증진을 위한 하나님 인식을 정립할 수 있었다. 루터는 하나님을 변증법적으로 이해할 것을 강조하였다. 계시된 하나님뿐만 아니라 숨어 계신 하나님이 존중받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초월성과 함께 신앙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러나 숨어 계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계신 존재로만 이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57] 고난당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이와 달리 하나님을 현실에 개입하는 존재, 인간의 상황에 공감하고, 함께 하는 존재로 이해하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이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개인적, 집단적 고난의 상황을 해석하고, 신앙을 공고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 인식의 전파를 통해 기독교인의 신앙의 유지와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공적 기능에 대한 논쟁은 이웃 사랑의 근본 목적을 파악

56) 김성수, "민주주의와 교회의 공적 책임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앙고백서의 법윤리적 조명," 「신학사상」 196(2022), 362-363.

57) 박영식, 『고난과 하나님의 전능 - 신정론의 물음과 신학적 답변』 (서울: 동연, 2019), 138.

www.kci.go.kr

하게 도와주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은 교회의 과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인정을 위한 수단으로 오해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 시스템을 위한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을 매개로 인정 투쟁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대신 사랑의 이중계명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웃 사랑의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58] 교회는 인간 실존을 위한 과제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 속에 묵묵히 공적 영역을 위한 섬김에 주력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팬데믹 시기의 신학적 논쟁의 분석을 통해 공적 교회의 역할을 재설정할 수 있었다. 이는 팬데믹 상황을 동일하게 경험한 한국교회의 과제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신앙의 유지와 증진 노력이 핵심 과제라는 점과 이 과정에서 공감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며,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 또한 교회는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진력하기보다 이웃 사랑의 실천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교회의 공적 노력은 복음의 영향력 증대와 그로 인한 공동선의 실현을 통해 현존 사회의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58) 이웃 사랑은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윤리적 규범이다. 이 큰 틀 안에서 다채롭고, 구체적인 실천이 이뤄진다. 이웃 사랑의 실천 방향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 같은 사안을 놓고, 의견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서적, 신학적 근거를 토대로 활발한 의사소통 과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Wolfgang Huber, *Glaubensfragen. Eine evangelische Orientierung* (München: C. H. Beck, 2017), 241-242.

www.kci.go.kr

참고문헌

김성수. “공적 교회의 개념과 책임적 과제 - 볼프강 후버의 교회론 연구.”「신학사상」185(2019), 149-174.

_____. “민주주의와 교회의 공적 책임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앙고백서의 법윤리적 조명.”「신학사상」196(2022), 347-370.

_____. “기독교 사회봉사의 법윤리적 해석.”「인문사회 21」14/1(2023), 3097-3106.

_____. “팬데믹 시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신학적 사유와 기도가 필요한 교회.”「활천」5(2023), 136-141.

박영식,『고난과 하나님의 전능 - 신정론의 물음과 신학적 답변』서울: 동연, 2019.

정문식, 정호경. “코로나위기와 헌법국가 - 독일에서의 코로나위기 대응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헌법재판연구」7(2020), 77-116.

Gottfried Wlilhelm von Leibniz. Essais de Théodicée. 이근세 역.『변신론』서울: 아카넷, 2015.

Anselm, Reiner. “Politische Ethik.” In *Handbuch der evangelischen Ethik.* München: C. H. Beck, 2015, 195-263.

_____./ Albrecht, Christian. “Verantwortung für das Gemeinsame. Die Aufgaben eines Öffentlichen Protestantismus.” In *Konzepte und Räume öffentlicher Theologie. Wissenschaft- Kirche- Diakonie.*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20, 57-65.

Bedford-Strohm, Heinrich. “Wo ist Gott in der Pandemie? Theologische Überlegungen aus Praxis und Reflexion kirchenleitenden Handelns.” *Evangelische Theologie* 81/2(2021), 87-100.

_____./ Bätzing, Georg/ Augoustinos, Metropolit. “Beistand, Trost und Hoffnung. Ein Wort der katholischen, evangelischen und orthodoxen Kirche in Deutschland.” https://www.ekd.de/gemeinsames-wort-der-kirchen-zur-corona-krise-54220.htm.

Bonhoeffer, Dietrich. DBW 8. *Widerstand und Ergebung. Briefe und Aufzeichnungen aus der Haf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98.

www.kci.go.kr

Gräb-Schmidt, Elisabeth. "Herausforderungen der Kirchen in der Pandemie und die Frage der Systemrelevanz." *Zeitschrift für evangelische Ethik* 66(2022), 3-8.

Huber, Wolfgang. *Konflikt und Konsens. Studien zur Ethik der Verantwortung.* München: Chr. Kaiser, 1990.

_____. *Kirche in der Zeitenwende. Gesellschaftlicher Wandel und Erneuerung der Kirche.* Gütersloh: Verlag Bertelsmann Stiftung, 1999.

_____. *Glaubensfragen. Eine evangelische Orientierung.* München: C. H. Beck, 2017.

_____. "Systemrelevanz und Resonanzkrise. Warum wir der Resignation in der Kirche nur mit Innovation begegnen können." *Zeitzeichen* 10(2020), https://zeitzeichen.net/node/8594.

Jähnichen, Traugott/ Von Bülow, Vicco. "Nach Gott fragen und mit Gott reden – Theologische Herausforderungen im Kontext der Corona - Pandemie." In *Nach Gott fragen angesichts der Pandemie. Von Gott reden – mit Gott reden.* Bielefeld: Luther Verlag, 2022, 11-28.

Karle, Isolde. "Experiment mit offenem Ausgang. Kirche in der Coronakrise." *Zeitzeichen* 4(2020), https://zeitzeichen.net/node/8218.

Kant, Immanuel. "Der Streit der Fakultäten." In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Wiesbaden: Insel Verlag, 1964, 261-393.

_____. "Über das Misslingen aller Philosophischen Versuche in der Theodizee." In *Schriften zur Anthropologie, Geschichtsphilosophie, Politik und Pädagogik.* Wiesbaden: Insel Verlag, 1964, 103-124.

Körtner, Ulrich. "Ethik in Zeiten von Corona. Eine diakonisch-ethische Perspektive." In *Die Corona-Pandemie. Ethische, Gesellschaftliche und theologische Reflexionen einer Krise.* Baden-Baden: Nomos, 2020, 343-358.

Kurschus, Annette. "Die ernsthafte Frage nach Gott." In *Nach Gott fragen angesichts der Pandemie. Von Gott reden – mit Gott reden.* Bielefeld: Luther Verlag, 2022, 29-44.

_____. "Die schöpferische Kraft des Gebets – Theologische Zeitansage." In

www.kci.go.kr

Nach Gott fragen angesichts der Pandemie. Von Gott reden – mit Gott reden. Bielefeld: Luther Verlag, 2022, 45-59.

Luther, Martin. "De servo arbitrio." In *Martin Luther Lateinisch-Deutsche Studienausgabe. Bd. 1.*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19-661.

Lutherisches Kirchenamt. *Unser Glaube. Die Bekenntnisschriften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86.

Moos, Thorsten. "Die Frage nach Gott und die theologische Fatigue in Zeiten der Pandemie." In *Nach Gott fragen angesichts der Pandemie. Von Gott reden – mit Gott reden.* Bielefeld: Luther Verlag, 2022, 75-92.

Schlette, Magnus. "Sonntags vor dem Bildschirm. Bemerkungen zur theologischen Profession in der Corona-Krise." In *Corona als Riss. Perspektiven für Kirche, Politik und Ökonomie.* Heidelberg: heiBooks, 2020, 91-109.

Ständiger theologischer Ausschuss der Evangelischen Kirche von Westfalen. "Die Frage nach Gott in der Pandemie – Krisenerfahrungen theologisch deuten." In *Nach Gott fragen angesichts der Pandemie. Von Gott reden – mit Gott reden.* Bielefeld: Luther Verlag, 2022, 61-74.

Stoellger, Philipp. "Eröffnung: Corona als Riss der Lebenswelt. Zur Orientierung über Naherwartungen, Enttäuschungsrisiken und Nebenwirkungen." In *Corona als Riss. Perspektiven für Kirche, Politik und Ökonomie.* Heidelberg: heiBooks, 2020, 13-30.

Welker, Michael. "Trostbedürftig und hassgefährdet. Religiosität in Zeiten globaler Krisen." *Evangelische Theologie* 81/2(2021), 152-160.

Van Oorschot, Frederike. "Präsent sein. Ekklesiologische Perspektiven auf das kirchliche Leben unter den Bedingungen des Infektionsschutzes und seiner Folgen." In *Corona als Riss. Perspektiven für Kirche, Politik und Ökonomie.* Heidelberg: heiBooks, 2020, 73-89.

논문투고일: 2023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2023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8월 01일

www.kci.go.kr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팬데믹 시기 독일에서 쟁점화되었던 신학적 주제들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획득한 관점을 토대로 교회의 공적 과제를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관한 논쟁, 팬데믹에 대한 신학적 논쟁, 교회의 공적 기능에 관한 논쟁의 내용 분석을 시도하였다. 교회는 복음의 영향력 증대를 기본 과제로 가지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신앙의 유지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 과정에서 공감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웃 사랑을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지 말고, 돌봄과 섬김에 집중해야 한다. 교회의 노력은 공동선의 실현과 사회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공적 교회, 공적 신학, 볼프강 후버, 팬데믹, 신정론, 사회윤리

www.kci.go.kr